

흑산공항 건설 가시화... ‘섬 주민 삶’ 대전환 예고

연간 110여 일 선박 운항 중단
 응급환자 발생하면 생사 기로
 주민·관광객 이동권 향상 기대

신안군의 오랜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섬 주민들의 삶에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전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안군은 향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해수부와 해양이용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 등 흑산 권역에 거주하는 10여개 섬 주민들은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목포에서 2시간여 소요되지만 선박 결항률은 11~13%, 연간 110여일은 선박 운항 중단으로 육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사에 기로에 서게 된다.
 신안군은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주민들의 육지나들이는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도 한결 쉬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와 중구 등 불법

외국선박 감시 등 해양영토 수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경우 동절기(11월부터 익년 2월까지)에는 해상주의보 등으로 결항이 잦지만 항공기는 겨울철에도 이착륙에는 큰 지장이 없다.
 선박은 강풍이나 풍랑주의보의 경우 하루 내내 운항이 통제되지만 항공기는 공항의 기상상황이 양호해지면 즉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어 선박에 비해 운항의 실효성이 큰 장점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2026년 개항을 목표

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해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에 건설되는 흑산공항은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운행되며, 1.2km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1시간대로 단축돼 교통약자인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4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189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관광 산업활성화 및 인구소멸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유동규→정진상→이재명’ 대장동 본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마무리 국면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 처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의혹 분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핵심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게 된 이이다. 이 과정에서 ‘50억 클럽’, 이 대표의 선거자금 의혹 등이 터져나왔다.
 우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유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선 전까지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공직자의 최고 위선은 유 전 본부장으로 봤다.
 그런데 대선 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중간선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개발 사업 내용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일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가 가장 뒷선일 수 있다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2015년 자선 사업 이익 49%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24.5%)을 이 대표 측에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여러 비용을 공제하고 약 428억원이다.
 검찰은 우선 정 전 실장을 김씨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뇌물약속)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가 정리되면, 검찰은 대장동 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의 공소장 일부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배임 액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부터 사업 이익 일부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788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공모 관계 부분도 변경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승인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이 공소장에 반영된다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재환 기자



사랑 등백 담아 만든 오곡밥 정월대보름을 나눌 앞둔 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서남봉사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오곡밥과 나물 등을 용기에 담고 있다.

광주시, 오는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해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저공해 미조치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

른 조치다.
 광주시는 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절관리 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매년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승호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51회 흙·사람 그리고 불

강진청자축제

2023. 2. 23. (목) ~ 3. 1. (수)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